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상반기 손해보험사기 조사의뢰 증가

□ 2009년 상반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손해보험금 지급청구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보험범죄방지국(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)은 밝힘.

- 보험범죄방지국은 거의 모든 손해보험부문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지급 청구가 증가했으며, 특히 차량방화와 유리파손의 경우는 각각 20%, 76% 증가하였으며, 제조물책임보험의 경우에는 90%나 증가했다고 발표함.
- 2009년 상반기 보험범죄방지국에 조사의뢰된 보험금지급 청구건수는 41,61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6,743건에 비해 13% 증가함.
- 보험범죄방지국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몇몇 부문에서는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방화나 자동차 도난과 관련된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많이 나타났다고 설명함.

□ 종목별로는 재물보험, 기업보험, 자동차보험이 각각 20%, 19%, 21%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, 특종(casualty)보험과 산업재해보험도 각각 15%, 2% 증가함.

- 재물보험의 경우 우박피해(hail damage)가 135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화재 및 방화는 8%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.
- 특종보험의 경우 낙상사고(slips and falls)가 47% 증가하면서 15%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.
- 기업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이 90%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건설기계·농기계·중장비보험의 경우 8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창고도난보험, 사업중단보험, 차량도난보험 등은 감소함.
- 전체적으로 2%가 증가한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중복청구 건수가 10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자동차보험의 경우 유리파손이 76%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.

(Insurance Journal, 9/9)